

중국·러시아 눈치 보는 '글로벌 중추 국가'

태평로



이용수
논설위원

이들 전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정부는 경축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아미티지 등 전직 장·차관으로 사절단을 꾸린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 전체가 고위급 대표단을 타이베이에 보냈다. 총 51개국이었다. 대만 전체 수교국(12국)의 4배가 넘는다. 이들은 별도의 축하 메시지도 보냈다. 서울에선 아무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외국 정상 취임식에 어김없이 경축 특사단을 파견했다. 출범 첫해 필리핀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케냐, 브라질, 나이지리아, 파라과이에 이어 지난 1월엔 과테말라에 사절단을 보냈다. 권성동, 정진석, 원희룡 같은 유력 정치인들이 단장을 맡았다. 지구 반대편의 경조사까지 살뜰히 챙겨 온 정부가 가장 가까이 있는 6위 교역국의 경사는 외면했다. 외교부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해온대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만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대만은 1949년 1월 신생 독립국이던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국가로 승인하고 수교했다. 북한이 남침한 건 이듬해

6월이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유엔군 한국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대만), 소련이었다. 소련이 표결에 불참한 것도 천운이지만 대만은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과거 인연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만은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외교 용어로 '유사 입장국' (like-minded group)이다. 이런 나라들이 50개국 된다. 익숙한 말로 '자유민주 진영'이다. 이들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냈

대만 총통 취임식은 외면하고 푸틴 취임식엔 참석한 정부 자유민주 진영과 계속 엇박자 중·러 환심 사도 결국엔 독 될 것

다. 한국만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대만은 섭섭하고 유사 입장국들은 의아했을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을 때가 연상된다. 그때도 동참한 나라가 50~51개국였고 한국만 발을 뺐다. 모두 이번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반복되고 있다. 2주 전 모스크바에선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이 열렸다. 크렘린궁은 각국 대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자유민주 진영, 즉 유사 입장국 대부분은 취임식을 보이콧했다. 이웃 국가를 침략하

고 정적을 제거한 독재자가 영구 집권을 자축하는 자리라고 봤다.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의 의미도 담았다. 한국 정부 생각은 달랐다.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를 참석시켰다. 프랑스 대사도 함께 라 망탕함은 좀 덜했는지 모르겠다.

임기 초반의 단선적 외교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런 것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대만 총통 취임식 1주일 전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을 설득해 이달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성사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흘러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얼마 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중국을 겁내는 공중증(恐中症)과 '러시아 포비아'는 한국 외교의 고질병이다.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할 때 중요한 건 유사 입장국의 단합된 언행이다.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자처하는 나라다. 안보리를 능멸한 푸틴 대관식에서 손뼉 치고 대만 총통 취임식을 모른 척해선 곤란하다. 당장 중국·러시아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 외교에 독(毒)이 될 것이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안만 망루에 올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 자유민주 진영 전체가 보이콧한 행사였다. 중국의 화답은 무자비한 사드 보복이었다. 비싼 수입료를 치르고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외교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성 [191]

진도 맹골도 군부무침



몇 년 전 이야기이다. 밤새 산모를 위한 긴 마른 미역을 만드느라 힘들었던 모양이다. 세상 모르고 끓어떨어졌다 눈을 떴다. 삼마를 아침은 쾌적함을 넘어 청아하다. 골목을 지나 바닷가로 나오니 주민 한 분이 바닷가에서 무엇을 세척하고 계셨다. 함지박에 넣고 치대더니, 바닷물에 다시 행겼다. 거무튀튀한 껍데기가 벗겨지니 흰 속살이 모습을 드러냈다. 별레 같은 모양을 한 주인공은 군부였다. "군부이라고 해요. 무척 놓으면 먹을 만하요"라며 어머니가 맛을 보라며 한 개를 입에 넣어주었다. 정말 식감과 맛이 먹을 만하다.

직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방에 가와를 얹는 것처럼 여덟 개의 판이 겹쳐 있다. 군부는 우리나라 전 해역 갯바위에 서식하는 조간대 생물이야. 바닷물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며 갯바위 표면 미세 조류를 섭식한다. 해녀들이 사용하는 빗장이나 칼 등을 이용해 갯바위에서 떼어낸다. 가까운 바다에서는 밤상에 올릴 만큼 큰 군부를 만나기 어렵다. 맹골도처럼 먼바다나 인적 없는 섬에 가야 좋은 군부만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수 추도에서 도선 취항을 기념하는 자리에 잡혀왔다가 귀한 군부무침을 맛보았다. 진도군 독거도에서도 군부무침을 만났다. 역시 바다가 거칠고 인적이 드문 섬이다. 이런 곳에서는 군부나 고통을 삼

아서 반찬으로 올렸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틈이나 절벽 등에 붙어 자라기에 채취하는 것이 모험이다. 솔에 넣고 삶은 군부를 거친 솔을 사용하거나 빨래하듯 치대서 껍데기를 벗긴다. 그리고 양념을 해 무쳐 먹는다. 약간 딱딱한 전복 같다. 거복손이나 샷갯조개와 달리 군부는 채취와 손질이 어려워 오롯이 어민들 몫으로 남아 있다. 군부의 각 판이 겹쳐지면서 생긴 주름이 마치 섬 노인 삶의 흔적과 닮았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다.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검경 등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야당이 직접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고발해 수사하라고 해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 자체엔 관심이 없고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밖에 안 보인다. 특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다는 것은 공정 수사는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특검은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다수 국민은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도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 의힘 일부 의원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법리란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재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 있다.

민주당도 특검 실시 시기와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특검 국회 통과와 실시엔 최소 한두 달이 걸린다.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 특검이라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듯하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불과 20여 일 전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나 협치를 모색했던 모습과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김진표 의원 특검법안도 남아 있다. 여야가 특검으로 정면충돌한다면 주요 국정 현안은 울스톱 되고 남은 3년 내내 극한 대치로 갈 것이다.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을 대표할 건가, '개딸'을 대표할 건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후보가 탈락하면서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강성 당원들은 "당원의 뜻은 추미애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와 반대로 우원식을 뽑았다"며 탈당을 예고하더니 며칠 사이 1만 5000명 넘는 당원이 탈당을 신청했다. 현재 민주당 관리당원은 150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6%포인트 하락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의 권한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일부 당원들은 "조국 혁신당으로 갈아타겠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의 절대적 지지로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됐다. 그래서 이 대표는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 50대50인데, 권리당원 비율을 이보다 높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강경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당대표 선출에 이어 지방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공천에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당대표와 국회의원 같은 공식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강경과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민심보다 당심(黨心)이 중요하다면 당헌과 당규를 그렇게 바꾸면 된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대의제 기구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까지 개딸들의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민심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의 뜻을 최대 20%까지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가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쟁점 법안에 대한 찬반을 의원 총회가 아닌 당원 총회나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초선 당선자들에게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건지, 개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건지 생각해볼라는 뜻일 것이다.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

중국 유통 플랫폼의 유해 제품 논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에 백지화됐다. 이미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구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공법은 안전성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강력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대형 마트들은 2012년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월 2회 공휴일 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 금지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혜택을 본 것은 시장 상인이 아니라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체였다. 최근 10년간 전국 전통시장은 1502개에서 1408개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쇼핑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었다.

온·오프라인 간 경계, 국내외의 유통 국경이 없어지는 판에 국내 대형 마트만 규제하는 법은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대구시, 서울시 동대문구 등에서 대형 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던 이

근 재래시장 매출도 함께 늘어났다. 서로를 잠식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생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해외 유해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선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현지 법인 형태로 법적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태 잠자고 있다. 이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방어를 머물 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게 '역(逆)직구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중소 입점 업체의 해외 물류·배송을 지원하는 공동 물류센터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중국 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이들의 4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정부는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제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역할을 잘하면 된다.

회고록엔 온통 김정은 믿는다는 소리뿐

문재인, 뭘 좀 알고 떠들라... 뭘 풀 뜯어먹는 소리만 요란한가

※ 현 정부 비판 4개항 실패보니 ※

- ① 외교안보정책 너무 이념적? ... "당신네가 더 했어"
- ② 위기 낮추는 노력 안한다고? ... "살은 소대거리 쌍육 듣는게 누구?"
- ③ 김정은이 억울해 한다고? ... "일편단심 계속 그렇게 두둔하슈"
- ④ 윤석열은 균형 외교 소홀했다? ... "윤 탓 아니라, 김정은 꼼수 때문"

문재인이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을 냈다. 그는 말한다.

1.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과도하게 이념적이다.

그러나 ★ 이념 과잉은 좌익의 경우가 훨씬 더 세다. 그들은 1980년대에 자신들의 이념을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 혁명(NLPDR)]이라 불렀다.

그이념은 ★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 대한민국을 극좌 전체주의 일당 독재로 끌고가고 ★ 유엔사 해체,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 한미-미일 협력 대신 북중러 전체주의 블록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비(非)좌파는 이념과 사상 자체를 ★ 모르고 ★ 경시하고 ★ 무용지물로 친다. [이념적 맹물들인 셈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과도하게 이념적]이라 해야 맞을까?

2. 현 정부는 남북대화외 위기를 낮추려 하지 않는다

핀 풀 뜯어 먹는 소리? 김정은이 남북대화를 끊어버린 건, 문재인 당시 때였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김여정이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당신을 [살은 소대거리]라고 깔아뭉갠지? 그레놓고 이제 와 [대화단절]이 윤대통령 탓이라고?

3. 김정은이 "미국 등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답답해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자유인과 당신은 100%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자. 당신은 김정은을 믿고 살라. 자유인들은 그

가 품으로 메주를 쏠대도 믿지 않겠다.

4. 윤석열은 균형 외교를 소홀히 했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포위되어 있다. 이런 지정학적 조건에선 ※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 서방 자유세계나, 유라시아 전체주의와]를 택할해야 한다.

김정은은 ★ 핵을 보유하고 ★ 중국 러시아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 한미 핵(核) 공조를 하고 ※ 해양 자유 세계를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이 언급한 [균형 외교] 어찌고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또 알아야 한다. 김정은은 최근 들어 대화는 고사하고 통일이란 개념 자체도, 동족이란 개념도, 사전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남북의 거리를 자꾸 좁혔다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韓流)가 더 많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체제 해체 효과를 핵으로도 막지 못한다. 김정은은 이를 극도로 경계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화가 끝났다. 우리 탓 아니다. 문재인은 이 모든 걸 제대로 알고서 나 떠들라. 모르고 떠들면 망신한다.

문재인은 김정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선 그것이

[최초의 영부인 외교]라고 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문체부장관 등 다른 공직자를 초대했다는 주장도 있다.

말 문다해에 관한 소문도 있다.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그녀에게 돈을 보냈다는 등. 이 건 확인된 것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1류근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 류근일 칼럼: 재야 있다고 비굴해지지 말자
- 이재명·조국, 정외로온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尹대통령, 누누를 이우 하나 없다
- 류근일 칼럼: 이재명 조국당 찍은 유권자들, 보수-풀이먼 주장자들에게 묻는다
- [이재명·조국 새생이] [윤석열 새생보다 나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어서 만들라
- 류근일 칼럼: 젊은은 '정사투쟁'
- 무너진 1자유·보수 우파+합리적 개혁 진영 재건 5가지 원칙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5월 19일 게재 되었습니다.